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임화정** · 민경아***

본 연구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청소년기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조사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 조사에 참여한 1,147 가구를 분석하였고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또한 매개효과와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추가로 실시했다. 연구 결과,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은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이는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가 성장한 청소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모 양육 태도, 청소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부모교육, 자기효능감

논문투고일: 2024. 8. 31.

최종심사일: 2024. 9. 13.

게재확정일: 2024. 9. 24.

* 이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제15회 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Min, Kyoung-A, Yeonwon 5-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E-Mail : rucia0829@naver.com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초기 청소년기는 개인의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평가로,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학업 성취,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발달과 직결된다(허정철, 2005).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시기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경험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질 수 있는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홍윤경·최혜진, 2024). 이는 종종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곤란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집행기능은 계획, 조직화, 행동 조절 및 정서 통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능의 어려움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적 및 행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는 청소년 발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집행기능이 높은 청소년은 목표를 향해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손한결, 2024).

선행연구의 고찰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민미희, 2020).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따뜻한 태도와 애정 표현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기 개념 형성에 기여함을 밝혀왔다(김소연·노충래·이지현, 2024).

또한, 집행기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계획, 조직화, 정서 통제 등 고차원적 인지 능력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때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영미,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 대부분이 특정 시점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장기적 영향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시점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 태도로 대할 때 자녀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자녀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조혜림, 유예진, 2017). 또한, 온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지해 줄 때,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조절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김영미, 2019)

본 연구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히 온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한결, 2024). 또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애정적 양육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미성·이순복·전귀연, 2005)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부모의 창의적 성격과 온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창의적 사고와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장성희, 손상희, 손희정, 2015).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정서 인식 명확성 및 의도적 반추는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조혜림, 유예진, 2017)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집행기능 곤란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기 때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아기 시점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기에까지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다루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발달적 맥락에서의 부모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하여,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들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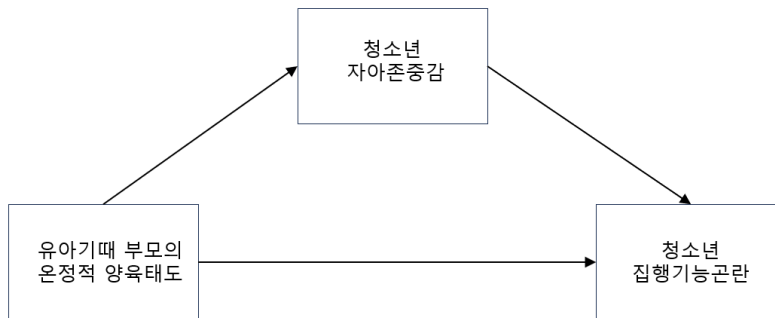
반적인 발달과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초기 청소년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초기 청소년기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분석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7차년도(2014)와 15차년도(2022)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대한민국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 실태

와 요구, 육아 지원 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육아 정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생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매년 동일한 패널 아동과 가구를 조사하는 종단연구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부모 양육 태도 및 육아 지원 서비스를 둘러싼 미시적인 특성 분석과 더불어 이들이 속한 사회적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 파악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의 패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와 15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147가구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 성별은 남아가 590명(51.4%), 여아가 557명(48.6%)로 나타났고, 모연령은 40세미만 898명(78.3%)로 가장 많았고, 40~50세 미만 244명(21.3%), 50세 이상 5명(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연령은 40세미만 616명(53.7%)로 가장 많았고, 40~50세 미만 516명(45.0%), 50세 이상 15명(1.3%)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구소득은 평균 445.11 (SD=186.12)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mean)	%(SD)
아동성별	남아	590	51.4
	여아	557	48.6
모연령	40세 미만	898	78.3
	40~50세 미만	244	21.3
	50세 이상	5	0.4
부연령	40세 미만	616	53.7
	40~50세 미만	516	45.0
	50세 이상	15	1.3
모학력	고졸 이하	323	28.2
	대학 이상	824	71.8
부학력	고졸 이하	301	26.2
	대학 이상	846	73.8
가구소득		445.11	186.12

2. 연구도구

1)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 1999)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kt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차년도~4차년도 조사까지 있었던 2개의 문항을 5차년도부터 조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으로 ‘아이에게 느긋하고 편안하게 대한다’ ‘아이에게 언어(예: 사랑해 등) 또는 신체적(예:쓰다듬기, 껴안기 등)으로 애정 표현을 한다’ 이다. 그러나 사용 차수가 7차 년도(2014년) 로서 척도의 문항 수는 8문항에서 2문항이 줄어든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집행기능 곤란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판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송현주, 201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 하위 영역으로 계획-조직화 곤란(planning-organizing difficulties) 11문항, 행동 통제 곤란(behavior control difficulty) 11문항, 정서 통제 곤란(emotional control difficulty) 8문항, 부주의(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y) 10문항,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점 Lkt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 ‘자주 그렇다(3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곤란 정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8차년도~11차년도 조사에서는 성인용으로 전환한 질문지를 저자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하였으며, 8차년도에는 어머니와 교사에게, 9~11차년도에는 어머니에게 질문하였다. 13차년도 조사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아존중감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CS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조사하였다. 총 5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9차년도 조사부터 일부 문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3번 문항(sfs39): 나는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5번 문항(sfs41): 나는 나를 좋게 느낀다 → 스스로를 좋아한다’ 이다. 또한, 8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는 의문문으로 질문하였으나(예: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13차년도에는 평서문으로 원복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및 Process macro 3.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 .01, .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에 관한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집행기능 곤란,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간접효과 모형인 4번 모형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신뢰도 분석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1) 신뢰도 분석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의 척도에
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성이란
측정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
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조건은 Cronbach's alpha값이 0.6을 기준으로 하며(Hair, J.F.,
et al., 2006), 다음 <표 2>는 변수별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값이 0.6을 상회하여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		Cronbach's alpha	항목수
모 온정적 양육태도		0.865	6
부 온정적 양육태도		0.855	6
자아존중감		0.876	5
집행기능 곤란	전체	0.928	40
	계획조직화곤란화	0.868	11
	행동통제곤란화	0.798	11
	정서통제곤란화	0.875	8
	부주의	0.880	10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 측정변인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 분포가 정규성을 띄는지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모든 변수의 범위는 Lkkert 척도로,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모의 전체 평균은 3.63이며, 부의 전체 평균은 3.50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1-4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전체 평균은 3.13점으로 나타났다. 집행기능 곤란은 1-3점 범위로 측정되었고, 전체 평균은 1.5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계획조직화곤란화는 1.73점, 행동통제곤란화는 1.30점, 정서통제곤란화는 1.47점, 부주의는 1.51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기준으로 2 미만, 첨도는 절댓값 기준으로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모든 변인의 왜도는 ± 2 미만, 첨도는 ± 7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 통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모 온정적 양육태도		1.00	5.00	3.63	0.55	-0.31	0.93
부 온정적 양육태도		1.00	5.00	3.50	0.57	-0.24	0.60
자아존중감		1.00	4.00	3.13	0.55	-0.45	0.86
집행기능 곤란	전체	1.00	2.48	1.50	0.32	0.58	-0.21
	계획조직화곤란화	1.00	3.00	1.73	0.44	0.23	-0.55
	행동통제곤란화	1.00	2.64	1.30	0.30	1.27	1.23
	정서통제곤란화	1.00	3.00	1.47	0.45	1.06	0.70
	부주의	1.00	3.00	1.51	0.45	0.89	0.21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집행기능 곤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

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높으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상관관계 값이 0.8 이하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Daoud, 2017) 분석 결과 <표 4>에서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초기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r=.060, p<.05$), 집행기능 곤란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r=-.111, p<.001$).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집행기능 곤란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319, p<.001$).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2	3
1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	1		
2	자아존중감	.060*	1	
3	집행기능 곤란	-.111***	-.319***	1

* $p<.05$, ** $p<.01$, $p<.001$

3. 가설검증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1986)는 1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2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3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2단계 모두 유의하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노경섭, 2019).

1)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먼저 <표 5>에서 독립변수인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분석한 결과 F값이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였고($F=4.131, p<.05$)

모형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 태도가 8년 후인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연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60$, $p<.05$). 즉,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5〉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자아존중감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	0.072	0.035	0.060	2.032*	0.042
F		4.131*				
R ²		0.004				
adj R ²		0.003				

* $p<.05$,*** $p<.001$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음으로 <표 6>에서 독립변수인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종속변수인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며, F값이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였고($F=10.537$, $p<.01$), 모형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이 모형에서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095$, $p<.01$). 즉, 유아기 시절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표 6〉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집행기능 곤란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	-0.056	0.017	-0.095	-3.246**	0.001
F		10.537**				
R ²		0.009				
adj R ²		0.008				

* $p<.05$,*** $p<.001$

3)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은 <표 7>과 같다. 독립변수인 유아기 때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며, F값이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였고($F=68.90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0.6%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집행기능 곤란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077$, $p<.01$),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14$, $p<.001$).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7〉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집행기능 곤란	부모 온정적 양육 태도	-0.045	0.016	-0.077	-2.748**	0.006
	자아존중감	-0.182	0.016	-0.314	-11.230***	0.000
F		68.901***				
R ²		0.108				
adj R ²		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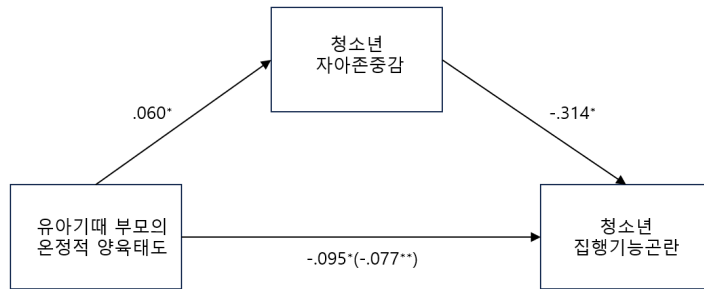
* $p<.05$,*** $p<.001$

4) 매개효과 검증

추가적으로 <표 8>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1.96보다 높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높아져서 결국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주요 변인 간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8〉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독립변수	B	SE	Z	p
독립 → 매개	0.072	0.035	2.000	0.046
매개 → 종속	0.182	0.016		



-.095*(-.077**) : 독립→종속 수치 (괄호) 독립→매개→종속 수치

[그림 2] 주요 변인 간 경로분석 모형

5)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Sobel Test이지만 정규이론접근(normal theory approach) 방식은 샘플의 분포가 반드시 정규분포를 띄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샘플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매개효과 검증 방법인 부트스트랩(bootstrap)의 신뢰구간을 통한 검증 방법도 신뢰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Hayes, 2013).

본 연구는 SPSS의 Process Macro Model 3.5를 활용하여, <표 9>에서 초기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9>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매개효과계수 (Effect)	Boot. S. E.	95% 신뢰구간		채택 여부
					Boot. LCI	Boot.ULCI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자아 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0.0058	0.0032	-0.0129	-0.0004	채택

주: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도 검증함.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한계(lower limit: LLCI)값과 상한한계(upper limit: ULCI) 값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hrout and Bolger, 200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문제의 주요한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모형의 F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131$, $p<.05$), 이는 연구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유아기 때 부모의 양육 태도가 8년 후인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로 인한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060$, $p<.05$), 이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때, 자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형성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장성희 외, 2015),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와 초기 청소년기 사이의 8년 동안 이러한 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초기 양육 경험의 장기적 효과를 시사한다. 이는 선행 연구(박소영, 이정업, 2021)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았음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연구에서 다른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 요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는 유아기 양육 태도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온정적 양

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장기적으로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이는 초기 양육 경험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종속변수인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 F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F=10.537, p<.01$), 모형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095, p<.01$). 이는 유아기 시절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 계획 능력, 정서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의 온정적 태도는 자녀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도 지지를 받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 (김영미, 2019).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재확인해주며,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의 성공적인 발달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한다. 첫 번째 연구 모형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유지된 것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았음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동일하다.

셋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 F값이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였고($F=68.90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0.6%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0.077, p<.01$), 자아존중감에도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314, p<.001$).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심리적, 정서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손한결, 2024). 이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학업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모들에게 온정적 양육 태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청소년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집행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업과 사회적 관계에서 집행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청소년 발달 연구와 실천적 접근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정신 건강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성·이순복·전귀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1), 39-56.
- 김소연·노충래·이지현(202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간의 중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6(1), 101-132.
- 김영미(201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52-66.
- 노경섭(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198-212.
- 민미희(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 손한결(2024).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그릇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한 중단연구. **청소년학연구**, 31(1), 257-281.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33(1), 121-137
- 장성희·손상희·손희정(2015). 부모의 창의적 성격 특성과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행동특성의 관계:가족기능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소**, 24(1), 303-320.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 37(10), 123-133.
- 조혜림·유예진(2017). 아토피 아동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34.
- 허정철(2005).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2(1), 57-76
- 홍윤경·최혜진(2024).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1), 5-28.
- Baron &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ir, J.F., et al.(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Hayes(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West, S.G., Finch, J.F. and Curran, P.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 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H.,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Thousand Oaks*, 56-75.

Abstract

The Impact of Parents' Compassionate Parenting Attitudes 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Early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m, Hwa Jung* · Min, Kyoung-A**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mpassionate parenting attitudes during infancy on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early adolescence, using data from 1,147 households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4 - 2022). Findings revealed that compassionate parenting significantly enhanced adolescents' self-esteem, emphasizing the lasting influence of early parental affection and involvement. Additionally, compassionate parenting was linked to reduce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mproving children's planning,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Self-esteem was identified as a mediator between compassionate parenting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with higher self-esteem mitigating cognitive challenge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arental education and self-esteem interventions for promoting adolescent development.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these dynamics across divers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Keywords : Parenting Attitude, Executive Function,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al Education, Self-Efficacy

* Doctorate Course, Child Care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Doctorate Course, Child Care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